‘폭염체전’ 체육 꿈나무들 다칠라

학습권 보장 한다며 체전시기 무더위 기승 8월로 옮겨

경기력 저하·탈수·열경련 등 호소… 추첨 승패 헤프닝도

8월의 소년 체전이 폭염과 폭우라는 복병을 만났다.

해마다 5~6월에 치러지던 소년 체전은 올 시즌 8월로 개최시기를 옮겼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부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체전 시기를 옮기면서 한여름에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8월 개최를 놓고 현장에서는 불볕더위에 의한 안전사고와 경기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체육회는 폭염에 대비한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경기시간을 오전과 오후 3시 이후로 배치하는 등 고심하고 있지만 어린 선수들은 물론 지도자와 학부모 등 관계자들도 더위와 싸우고 있다.

오후 늦은 시간 경기가 시작되면서 복싱, 정구 등은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경기가 진행되는 등 ‘폭염’때문에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폭염에 의한 탈수 등 응급 상황을 대비해 213명의 소방본부 직원들이 45개 경기장에 배치됐고, 한밭종합운동장에는 119 안전센터도 마련했다. 안전센터에는 하루 1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열경련 등을 호소하며 발길을 하고 있다.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도 찾아보기 힘들다. 더위에 그들만의 잔치로 치러지고 있다.

또한 학습권 보장이라는 취지로 대회 시기가 조정됐지만 정작 선수들은 방학중 열리는 대회를 위해 예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회 준비에 쏟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설상가상 여름의 불청객 태풍 때문에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10일 진행된 사전경기 테니스 남중부에 출전한 전남팀은 폭우로 이날 경기를 끝내지 못해 11일 다시 코트에 올랐다. 11일 오전에 예정됐던 정구, 사이클 등 종목이 우천으로 인해 오후로 연기돼 진행됐다.

야구종목의 경우에는 비때문에 경기 자체를 치르지 못해 5경기가 추첨으로 승패가 갈리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예선과 8강에서 잇달아 콜드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한 강력한 우승후보 서석초도 13일 비예보에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지어야 할지도 모를 입장에 처해 있다.

8월 소년체전이 폭염과 폭우에 힘겨운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해병대로 간 펜싱국가대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청룡 훈련단에서 펜싱 남녀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자기 자신부터 이기기 위한 군사 훈련을 받으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미·신영용 2관왕

〈육상:광주체중〉 〈역도:고흥중〉

광주·전남 메달 레이스 순항

전국소년체전

제 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틀째인 12일 광주는 육상 2관왕을 배출하며 금메달 사냥에 속도를 냈다. 첫날 10개의 금메달을 싹쓸이 했던 전남도 역도에서 2관왕이 탄생했다.

광주 육상의 희망 한정미(체육중)가 이날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여중 200m에서 25초21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100m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했던 한정미는 사제 2관왕의 기록도 썼다.

한정미를 지도하는 김재다 코치는 1996년 전국체전 3관왕에 이어 1997년 4관왕을 달성하는 등 광주 육상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조대부고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던 김재다 코치는 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중으로 파견, 육상 꿈나무들을 조련하고 있다.

광주 양궁의 정유리(두암초)는 여자 초등 20m에서 359점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체육중 홍영철은 레슬링 남중부 그레코로만형 54kg에서, 유도의 김영재(체육중) 남중부 -55kg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역도 남중 77kg급에 출전한 고흥중 신영용은 인상에서 133kg으로 1위에 오른 뒤 합계 243kg을 기록하며 2관왕에 등극했다. 전날 대회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차지했던 인라인 롤러의 김선엽·이수진(이상 광야제철초)도 금메달을 더했다.

초등부 남자 1000m에서 1분38초845으로 대회신으로 1위로 골인했던 김선엽은 3000m 포인트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초등부 여자 1000m에서 1분38초900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웠던 이수진도 3000m 포인트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태권도 남중 라이트급의 고혁재(전남체육중)는 페더급에 출전한 쌍둥이 동생 고호재에 이어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여중 라이트미들급의 박유영(전남체육중)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육상 김민연(전남체육중)은 원반던지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정후〉

〈고혁재·호재〉

KIA 이종범선수의 아들 정후군 서석초 주장 활약

전남 고혁재·호재 쌍둥이 형제 나란히 금빛 발차기

■ 소년체전 이색 출전자들

소년체전에 가족이 함께 뛰거나 또는 체육인 2세가 활약을 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1·12일 태권도 경기가 열린 한밭다목적체육관에서는 똑같은 외모의 선수가 나란히 금메달을 차지해 화제가 됐다. 전남 태권도 대표로 출전한 고혁재·호재(전남 체육중 2년) ‘쌍둥이 형제’가 그 주인공이다.

동생 고호재는 대회 개막날인 11일 남중 페더급에서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다. 12일에는 형 혁재가 라이트급에 출전해 역시 시상대 한가운데 섰다.

똑같은 외모와 똑같은 실력을 겸비한 두 선수는 동반 우승에 성공하면서 전남에 금메달 두 개를 안겨줬다.

아버지를 빼닮은 야구 실력으로 주목을 끄는 선수도 있다. KIA 타이거즈 최고참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이종범의 아들 이정후는 광주 야구 대표인 서석초 소속으로 대전을 찾았다.

올 시즌 투수로도 마운드에 오르고 있는 이정후는 역대 최강 전력으로 손꼽히고 있는 서석초의 유격수와 주장을 맡으며 공·수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정후는 대회 예선과 8강 두 경기에서 6타수3안타 2타점 4개의 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이종범은 한화의 제 2의 구장인 청주에서 아들은 대전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었다.

또 다른 부자 체육인도 있다. 광주 체조 주광성 전무이사는 주경서(체육중 2)·윤서(양산초 5) 두 아들과 소년체전에 참가하고 있다. 두 형제의 어머니 정애리 씨도 체조인 출신이다.

전남 유도회 김양호 전무이사는 전남 유도 대표 김민국(순천 신흥중)과 경기장을 누비고 있다. 이외에도 전남 인라인롤러 대표인 강태욱(나주중 2년)과 강라주(나주중 1년)은 남매다.

/대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특급좌완’ 유창식 삼진쇼

10K 무실점 호투… 우승후보 북일고에 9대1 콜드승

광주일고 봉황기 8강진출

고교 초특급 괴물 유창식을 앞세운 광주일고가 난적 천안 북일고를 콜드승으로 제압하고 봉황기 8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는 12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천안 북일고와의 봉황기 16강전에서 6이닝을 1피안타 1사사구 무실점의 투구로 막은 유창식의 호투를 앞세워 9-1로 7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유창식은 탈삼진도 10개를 뽑아내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됐다.

1회 김요셉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은 광주일고가 3회 두 개의 3루타를 앞세워 4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광주일고는 5회에 4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등 4점을 더해 7회 9-1 콜드승을 거뒀다.

강력한 우승후보 북일고를 콜드승으로 꺾은 광주일고는 14일 오전 10시 경기 야탑고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제40회 봉황대기 북일고와의 경기에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9-1 콜드게임승으로 이끈 광주일고 유창식 투수가 힘차게 볼을 던지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